

April 20, 1949

**The Korean Issue at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Citation:

"The Korean Issue at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pril 20, 194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Shipping Advice 2005, Item 2/99. Obtained for NKIDP by Charles Kraus. <https://wilson-center.drivingcreative.com/document/116523>

Summary:

Published by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Problems in 1949, this book contains a compilation of letters and news from 1948 that cover North Korea's position toward the Korean issue at the United Nations.

Credits:

This document was made possible with support from Leon Levy Foundation

Original Language:

Korean

Contents:

Original Scan

第三次國聯總會와 朝鮮問題



Doc. no. SA 2005
2/99

國際問題研究會

1949. 조선. 평양

유·연에 대표를 파 할수있을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조약체고인민회의의

결정 (一九四八年九月十日)

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결정 제116호 국립총회대표마직에관한결정서

(一九四八年十月七日)

一、국헌자 무종강에게 발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생의서한

(一九四八年十月七日)

一、불탄지 와 무삼에게 받은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삼의 서한

(二九四八號十七日)

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상이 국헌통치제二과회의의의장에게 발송한전문

(一九四八年十月九日)

一、**윤.영** 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장에 보낸 회전문

(一九四八年十月十二日)

一、一九四八年十一月二十日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一九四八年十一月十一일 一〇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정책을 거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합리한 一九四八年十一月六일 一四
- 一, 一九四八年十二月六일 정치위원회에서 一七
- 연설 미클러 一九四八年十二月七日 二六
- 유·엔위원단 조정을 위하여 정치위원회에서 一九四八年十二月八일 二九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三二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三五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三八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三八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六〇
- 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상아 국전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서한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六四

△유엔에 대표를 파견할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제7회(一九四八年 九月十日)에 김장현대의원의
제기에 의하여 다음과같은 결정을 단행함으로써 채택하였다
「단일 유엔에서 조선통치에 관한 토의가 있을때에 그필요에
따라 화결할수 있을것을 정부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집행제 一六호
국립총회대표파견에 관한 결정서

내각제五차회의는 一九四八年 九月十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단일 유엔 총회에서 조선통치에 관한 토의가 있을때에
그필요에따라 대표를 파견할수있을것을 정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에 의거하여
현제 파견에서 실현되고있는 국립총회에서 조선통치에 관한 토의에
앞서 유엔총회에 정부대표를 파견할필요를 인정하고 대표를 다음과같은
임명한다

정부대포단

수석대표

의무상
위원

박현영
홍명희
박정애
리용
홍기주

정부대포단인 국민총회에 참가위하여

유, 연사무총장

트로그배, 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의 유, 연총회참가를 요청하는 서한과 불탄서정부

의무상 로베르, 슈망에게 우리대표의 불탄서입국사증을 요청하는서한을 발송

할것을 의무상에게 위임한다

一九四八年十月七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점의무상 박헌영

(一九四八年十月八日부동식문)

△국민사무총장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의 서한

파리

국민사무총장

트로그배, 리에게 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나는 우리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총장 귀하

에게 다음과같이 요청하는 영광을 가지노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적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진 전민적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변들

조선인민이 자기의 민족적 정제 문명 국가수립을 재지하기위하여 완강하고

도 주권하게 투쟁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인민이 四十年동안 일부식민지적타자들에 대항하여 전가하여온 유혈의투쟁

의 목표 우리자주독립국가를 하 부패 전설하기위하여 一九四八年八月에 남북조

선언을하여 중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이에 남북조선전체유권자위 八五、二%가 참

가하였읍니다

이런거는 우리인민의 자유롭고 법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동시에 이런거는 우리나라의 통일을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우리인민의 역량과 열의를 전세계에 전시키 하였습니다.

이런거에 기초하여 조선에는 우리인민이 오래동안갈망하여온 최고집행기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통일정부가 창건되었습니다. 남북조선의 각의한 정치적방향을 가진 모든 중요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은 남북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있습니다.

우기한바로부하를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사무총장권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들에게 국민주회의에서 조선문제점의에 참가할 가능성을 부여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것을 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노민족에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해민족의법적대표자들의 참석하에 심의되고 결정되어야한다는원칙을 부정할것은 없으리라요 우리는 굳게 믿는바입니다.

나는 사무총장권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각요청을 거부하지않고 귀하의정제에 관한것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귀하에게 충심으로 재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장

박

현

영

一九四八年十月七日

조선 평양

(一九四八年十月八일 로동신문)

△불탄서공화국의무장에게 발송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의 서한

파리

불탄서공화국의무장

로베르, 슈망 귀하

존경하는 삼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장

나는

우리정부의위임에의하여

상귀하에게 귀하

가 프라가주재 불탄서공화국대사에게

귀기성원으로구성된

국면회의와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의

불탄서(파리) 입국사증의

부여를

지시하시기를

요청하는

영광을 가져는바입니다.

대표단성원

의무장

박정희

六

통역

방도
등유
민호

상권하가
우요결을
옹락하고
이를
나에게
통지하시기를
기대하는바
입니다
귀하에게
충실으로
경의를
표하
면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원영

一九四八年十月七日

조선중앙

(一九四八年十月八일부로
통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무상
박원영선생이
국민총회제三차회의의장에
발송한
전문

파리

국민총회제三차회의의장

에바르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위임의의하여
나는
의정귀하에게
다음과같이
유
청하는
영광을
가정
하
입니다

조선이
연합국
무력에
의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속된
지배
아
압으로
후퇴
해방
된
이
우리가
나라에서
는
지대
한
역사적
의의
를
가
진
전환
들이
일어
났
습
니다
이
전환
들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민족적
경제
문화
및
국가
독립을
재건
하기
위하여
완강
하고
도
구
준
하게
투쟁
하여
온
결과
입니다

우리인민이
四十
년
동안
일본식
민지
침략
자
들에
대항
하여
전개
하여
온
유혈의
투
쟁의
목표
——
우리
자
주
독
립
국가
를
하
루
바
빠
전
결
하
기
위
하여
一九四八年八月에
남
북
조선
을
통
합
하여
총
선거
가
실
시
되
었
을
때
이
에
남
북
조선
전
체
유
권
자
의
八五、二%가
참
가
하
였
습
니다

이
선
거
는
우리
인
민
의
자
율
로
도
법
적
인
의
사
표
시
였
습
니다
동
시
에
선
거
는
우리
나
七

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를 철저히 선시하였습
니다. 이선거에 기초하여 조선에는 우리 인민의 오래 동안 갈망하여 온 최고법정기관과
최고집행기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통일정부의 창건되었으며
이는 남북 조선의 각인민 정권적 방향을 가진 모든 공화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표자
들과 남북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의장권자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에게 국면총회의에서의 조선문제점의에 참가할가능성을
부여하도록 취하에게 요청할것을 다에제위인하였습니다

어느민족에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해민족의 법적대표자들의 참석하에 협의되고
정정이야한다는 원칙을 무조건자는 없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바입니다
다음의장기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우익정책을 지후하지않고 취하의
정상에관한 중대한 나에게 본대우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이하에게 중점으로 정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박 현 영

一九四八년十月九日

조선평양시

(一九四八년十月十二日 로동신문)

△유·연사무총장 트루그메·리-가 박현영의무상에게

보낸 회신

조선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무상 박현영 각하

총회제一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에 참가할 기회를 조선공화국정부 대표
단에게 줄것을 요청하는 一九四八년 十月八일부 각하의 전보를 접수하였을것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나이다
각하의요청한 제一위원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때에 동위원회위원들의 회에참
부하것나이다

사무총장 트루그메·리

파리 十月十三日

(一九四八년十月二四日 로동신문)

△一九四八년十一月二十日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헌영의 무장은 국면에서의 조선문제토의장 임박함에
비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에게 국면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참가할
기회를 허여함에 관한 문제를 시급히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十一月十九일
다시 국면사무총장 트루그비·리·제와 국면추진위원회 3차회의 의장에 마르세에게 보
내었다

박헌영의 무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국면총회 제3차회의 정치위원회 의
장 스와·크제에게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초청에 관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제의를 미국이 반대

一九四八년十一月十日 및 十一月十五日 정치위원회에서

주지하는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의 대표들이 유·엔총회에
전무제를 논의하는 데 참가할 것을 승인하여달라는 요청을 제기하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 요청서에서 다음과같이 전술하였다

「이 민족에 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해민족의 법적대표자들의 참석하에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할자는 없으리라 우리는 굳게 믿는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을 초청할 때 대한 문제를
정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자들이 조선으로부
터 과격료 제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었을 초청장을 미리 보내어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제에 반대하여 미국대표 말레조는 「조선대표들」이 필적과 대외에서 체코
제이외판에 유숙하고 있는지 오래된 것만큼 그러한 초청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

고 말하였던 이것은 말레조가 남조선에서 미군정에 의하여 조작된 의의 정부 보
물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의장은 서한이 늦어지고 또 조선은 제에 대하여 분명히 있음을 구설로 삼아 조금하
게 회의를 폐막시켰다

그리하여 아무런 결성도 채택하지 못하였다
오늘(十一月十五日)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또다시 정치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들을 초청할 때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제는 조련대표의 자격을 받았는데 조련대표는 유·연제 2차 총회에서 일찌기 쓰레트대표가 조선 독립문제는 우선 조선인민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조선인민대표들의 참가가 없이는 토의될 수 없으며 더구나 결정될 수 없다는 전지를 말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쓰레트대표단은 이천치가 一九四五年十一月十四일부 유·연제 정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 결정서에는 유·연제 회에서 합의되는 조련문제는 우선 조선인민 자체의 일이며 그의 자유와 독립에 관계된다는 것과 이문제는 그나랏 안민대표들의 참가가 없이는 공명정대한 결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전술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쓰레트대표는 전조선회를 통하여 실시된 자유선거의 결과에 남측조선인민대표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대표자함으로써는 최고인민회의가 선거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러고 인민회의는 정민측정부를 창설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연제 2차 총회는 조선 독립문제를 합의하는데 조선인민이 선명한 대표들을 초청하여 참가시켰음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쓰레트대표는 말하였다

전조선인민의 이와 같은 선명한 대표들로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들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쓰레트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이 회의에 오자면 적어도 7월은 결하여야 될 것을 타산하고 지금 즉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제의는 역시 우크라이나 백로시아 과한 대표들의 찬동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대표 탈레스는 재차 출현하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토이문제는 조선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는 때야만 심의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탈레스의 의견은 즉시 중수 회합 말바도로 대표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영발리에 순응하는 위원회의 다수는 위원회에서 금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초청을 제의할 때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이문제를 대한 합의는 제 1 위원회에서 조선문제에 착수할 때까지 연기시켰다 (파스)

(一九四八年十一月二十日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참가를 거부하고

一四

조선문제의 토의를 미영블럭 불법체택

十二월六일유·엔정치위원회에서

유·엔총회의가 끝나기까지 겨우 하루 일일이 남아있으며 또한 정치위원회는 아직껏 중요문제를 심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十二월六일 정치위원회에서는 현재이런문제를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토의가 개시되었다

미국대표 밀라쓰는 조선문제를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대표 말라크는 조선문제로의 복잡한 문제이며 남은사일안에 완전한 심의할 수 없을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이때리식민지유명문제가 외무회의에서 충분히 해명되었던만큼 이문제에 관여할것을 제의하였다

미국대표단은 자기제안으로 고집하였으며 그리고 그의은수한「다수파」의 힘을 빌려 그의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선문제가 대국으로 논의되며 이러한으로써 자기에게적합한 정정할 강요하며

한국대표단의 의도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초대하여 그전회를 전술시킬때만 한 것이기로서 보더라도 명백하여졌다 채코슬로바키아대표는 전조선의 절대다수의 유착권들이 참가한 민주주의선거의결과 수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를 초대할것을 제의하였다

중국대표는 전반총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의 주장으로 비법적으로 조직된 기관 중국대표단「유·엔조선위원회」의 원조하에 미군정당국이 조성한 소위 남조선정부대표단을 조선인민의대표로써 인정할것을 제의하였다 조선대표초대에 관한 토의는 극히 침

대한성격을 매우게되었다

밀라쓰의 선전에 따르면 중국 유절렌드 기하 하루국가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초대할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유권자 七七·五二%와 북조선의유권자 九九·九七%가 참가한 남조선선거의결과 이정수가 수락된사실은 한번이 주지하고있는것이다

상기대표들은 이전에 일본침략자들에게부수하던 미국인앞잡이들이 조작한 정당한 레로의 분유기속에서 미국황국이진행한 선거혁명의 결과로써 형성된 남조선최고 정부가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있다고 무근거하게도 주장하였다

소련대표 말라크는 남북조선인민의 모든사회계층을 망라한 대표들로서 구성

하였으므로 전체조선인민과 자자를 받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조선인민
 의의사의 전정한대로자일을 증명하는 반박하여지없는 사실들을 인용하였다
 그는또한 유·엔조선위원회위원수명의 고의적 기하를인용하는 인용하여 남조선의
 선거가 상치위원단의 원조로 미국당국이알파리에서 연술한 출열한 허국이며 이
 러한 위위선거의하여 수렴된 소위 남조선「정부」가 실제로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탈리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대표들을 초대위원회에대한 체코슬로바키아제안을 채택할것과 소위 남조선「정
 부」대표들의의견을 청취할데대한 중국제안을 거부할것을 제의하였다(화판 우크
 라이나 백로찌아 유·엔사무비아대표들도 또한 스베트대표단의 전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여러사실들과 숫자들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영국 중국대표단의 지지를받은 미국대표단의 조야한 억압정책의결과로
 체코슬로바키아제안은 부결되었고 중국제안이 미영블럭의 포결로써 통과되었다
 이러한 미국대표단은 그가 조선인민의 전정한대표들을 조선문제로의해 참가시
 킨것을 우리위하는사실을 다시한번 증명하였다
 (一九四八年十一月九일 로동신문)

△一九四八年十一月六일 정치위원회회의의에서

전술한 조선후보 야·말리크는

조선후보 야·말리크는 조선문제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대표들을
 초청참가시킬데대한 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의 제의에 관하여 정치위원회에서 연설
 하면서 이문제심의의를 방해하려고 미국대표 말리크가 취한 행동에대하여 정치위
 원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런데 말리크는 조선문제회의를 방해할목적으로 체
 코슬로바키아제안은 이미 거부된듯이 성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증명하기위하여 유
 ·엔의 공적기관지에 쓰여있는문구를 인용하였것이며 말리크는 이에대하여 이
 미 지난十一月에 체코슬로바키아대표단이 조선인민공화국대표를 초청할데대한 그
 의제의를 일지기로 할 필요에대한 문제를 정치위원회회의에 상정하였던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여러나라대표들의 반대로 말리야마 정치위원회는
 체코슬로바키아대표의 제의를 조선문제회의가 시작될때에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十一月十六일부 유·엔기관지에는 보도하기를 정치위원회는
 체코슬로바키아대표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는것이착오인가 그렇지않으면 철
 정인가하고 탈리크는 질문하였다 이것이 여러가지구별의 질수인가 그렇지않으면

그에게 그 누가 시키한 일인가? 오를 미국대통령 이같은 보도에 의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타산하여볼 때 그기관자가 그와 같은 착오를 범하는 한 나는 그기관자의 직관성을 의심하는바이다 말리크는 또한 그기관자의 다음호에 차기대한 정정이나 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정정에는 정치위원회가 조선문제를 논의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들을 초청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코슬로바키아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오늘 말리크씨는 그기관자의 첫번보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 그기관자의 정정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였었다 어쩌서 말리크씨는 정치위원회가 그문제를 심의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다는니 다시 그문제로의에 귀착하지 않으려고 전의하였나 하고 정식성명만 믿을가 어찌있는가? 말리크는 말리크의 이같은 행동이 유언한 사실이 아니라 끝까지 지적하였다 이제동의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다 말리크는 조선인민의 진실한 대표들의 의결을 침위하기를 겁내고 있는 것이 다 말리크는 제코슬로바키아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에 언급하면서 조선에 관한 유언위헌단의 제의를 주의하여 읽어본 사람은 조선인민이 남조선에서의 단독거짓지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을수 없다고 성명하였다 남조선의 좌익정당들만이 아니라 김구와 김구직같은 유명한 우익정당들을 수반으로

로한 남조선의

포함하였는 것이다 금년二월에 유익결정의 이루어진 것은 조선에서 외국군대들을 철수케 할지 하거나 전반기선거에 기초하여 통일정부 수립할 이두가지 중대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제정당과 제사화단체들의 대표회의를 소집할 자기계획을 위원단의앞에 제출하였다

이계획은 그후에 실천되었다

만은 이제회를 발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제회에 동이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우조선의 제정당과 제사화단체의 대표들도 저명한 대표자 김일성과 김두봉을

정유하여 이와같은 협의회를 소집할것을 역사 제의하였다 김구와 김구직의 할

거는 남조선의 사회계에서 광범한 환영을 얻게 되었다 一九四八년四月十九일 남부

조선의 사회계의 압도적다수를 대표하는 五十六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연석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남북연석회의에는 一천만명이상의 인민을

포함한 제정당 및 제사화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런석회의에는 남조선내전정의

정적적자수로되는 소위 한국민주당과 미국앞잡이인 이승만도 배——어두

반등 그루마만이 참가하지 않았다 친일반역자들로써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인

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로써 중대한 이두국우의 반등 그루마는 명고

정의 명령에 복무하여 또 조선사회제의 대표자들과 대면하기를 전내서 역면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북면석회의는 전조선인민에게 보낸 격문에 그의정장을 전술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단선실시물을 제정함으로써 반대한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그리고 또 남북면석회의는 마관과 측량양정부에 대하여 남북조선에서 의군군대들을 주사 처거할것을 요청하였다. 그후 4월만에 김일성 박헌영 김두봉 김구 김규식이 참가한 3개장단 및 새화단체 지도자협의회가 소집되었었다. 이외의예서는 조선인민의 의회적적임과 평등적이며 전반적인 선거권에 기초한 비밀투표제와 제법기관의

발표크는 조선주된 미군정당국은 조선인민의 절대다수인 정당 및 새화단체를 전제 명백하게 표시한 의사를반대하며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전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유·연조선위원단에 참가하였던 호주 및 중국대표의 상명에 의하여 판정하면 남조선주된 미군정당국은 될수있는대로 이선거를 전행함으로써 국유화를 동장단인 한국민주당과 이승만대표들의 대표자들이 선거된 기관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애썼던바 이것은 선거결과로 보았되었다. 유·연위원단내에

국앞에 순종하는 그룹은 위원단인 고비법적선거에 참가할것을 주장하였었다. 전자는 가혹한 정치적압박과 관악의 조종하에서 전행되었다. 중간위원회의는 위원단을 역설하였고 중간위원회의의 미국대표들은 중간위원회를 역설하였다.

말리크는 단독선거에 참가할것을 특별히 주장한 위원단의 위원들을 지명하였다. 그것은 즉 바울린대표 발바드로 중국대표들과 또는 인도대표였다. 「아와갈이 선거에 참가할때 대한 결정은 위원단위원 4명의 투표로써 채택되었다. 5명중 내서 2명의 위원은 반대하여 투표하였고 2명은 기권하였고 1명은 전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위원단은 카다만출처 중요성을가진 결정을 「발이 공신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보충투표제 미군정에 유대한 남조선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위원단의 재표를 본다면 남조선주된 미군정당관 하-지정관 자신도 그의결핵에 의하면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할수없다고 성명하였다. 이따함에도 불구하고 유·연위원단과 중간위원회는 그선거를 실시할때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말리크는 이와같은 행동이 유·연위원단과 상임에 타격을 주는것이 아니고 시명하였다. 남북면석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선선서문 발표한 제정당국으로볼라 유·연의 비호명에서 미군정당국의 조선인민에게 감행하는 고위감은 결정을 공수방관하였다면 그것은 유체하고도 놀랄만한 일이있을것이라고 말리크는

제정하여 성명하였다

하한제들이 적당한 정제를 취하였던 것은 국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제
 二條 남북조선 제정당사 회단제 대표들의 한석회와가 소집되어 남북조선 총선거
 사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이설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실시되
 었고 남조선에서는 비밀리에서 二중선거의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대표를
 선거하였고 이대표들이 회정하여 전조선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을 선거하였다. 이를
 거는 조선인민들의 자유의사의 표시였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선거권 대표수
 는 一〇八〇명이었는데 대회에 참가한 대표차수는 一〇〇二명뿐이었다. 그것은 비
 군정당국이 四八명의 대표자들을 제포하였고 三〇명은 로동에서 살해당하였던
 까닭이다. 그들은 남조선정찰 혹은 비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나
 八월二十五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三六〇명을
 비밀무로서 선거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三二二명을 선
 거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에 북조선에서는 전유권자의 九八・九七%가 참가하였고
 남조선에서는 전유권자수의 七七・五二%가 참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리크는
 불명하기를 전조선인민은 이렇게 선거에 현실적으로 참가하면서 비군정당국이 참

가한 남조선 五・十단선을 반대하는 힘을 지위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조선인민들은 남조선「국회」와 그「국회」에서 조작해낸 소위 정부를 모이
 로 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조선인민들의 각계각층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제모들을 말리크는 열거하였다.

이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는 一치가 결로 전민이 통과되었으며 조선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조선인민이 남북조선인민을 합
 하는 최고정권기관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리크는 강조하였다.
 九四四年 十一月十四일부 제二차유・연총회결정서에는 조선독립에 대한 문제를 접의
 할 때에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이와같은
 전조선인민의 대표로는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될 수 있다고 말리
 는 언명하였다.

상술한바에 의하여 조대표로는 조선군제를 논의하는 유・연총회에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초청하는 제코슬로바키아의 제의를 지지한다고 말리
 크는 성명하였다.

그다음 말리크는 소위 남조선정부 대표를 조선대표로서 초청하여야 한다는 주
 대표단의 제의에 대한 조선대표단의 견해를 진술하였다. 유・연위원단의 제의에

포함되고 있는 사실의 문헌들은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수 있는 조건의
들이 현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주고 있다고 말하고는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고
관직장 임명권 무의정적 권위와 김구적 또는 김구다한 남조선적 사회단체들을
괴이것을 지칭하고 증명하였다. 남조선의 모든단체들과 이 모든체들은 남조선의
정권국가로 와야만 하며 모든주권이 미국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찰의 수중에 처
하여있으니 영국의 지도적지위는 소위로부터 그 이상은 五三%나 조선에서 이전
에 일본이 차지했던의 판데로써한자들이 차지하고있으며 민간기관내의 책임적지
위에로 일본이 차지한자들이 동용되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 조선하에서
민중의 정치적활동과 민주주의적정체들에 대한 자유한 수방과 활동이 잠해되고있다
유·엔의 위원들은 그 결론에서 민주주의적정체들의 절대다수는 무속되었거나 전지
운 위력에 의해 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무부장 자체는 한국민주당이
그들의 의도와와 피승탄도배와 밀접한관계를 가지고있는자이다 한국민주당과 리
승탄도배들은 수정된 「정부」가 조선의 남반부에서만선거되었다 하며마도 그「정
부」가 전체인민의의사를 표현하지않는것만큼 정치적의미에서볼때 민족적정부라고
稱할수없는것이다 그「정부」가 남조선인민의 의사와도 표현하는나쁜것을 의
하지않는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부연하였다.

나다대표는 증명하기를 원조전하에서는 민족적정부를 수립할수없음으로 남
조선에서만 실시한 선거는 비법적선거라고 하였다. 불란서대표도 이와같은립장을 취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위원단은 九명의 (위원 1명은 동위원단사
원에 참가하지않은것을 타산하여) 위원단 四프로써 남조선인민의 운명을 결정하
였다.

말리크는 결론에서 위원단의 대표들은 남조선에서의 선거가 선거자들의 자유
의사표시의 간능성이 없는환경에서 실시되었음으로 그선거를 법적선거로 인정할
수없는것이라고 증명하였다. 때문에 허위적반민주주의적 선거결과로 조작된 남조
鮮정권기관들은 남조선인민의 법적대표기관으로 인정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리유로
조선대표단은 정권정권대표를 조선문제회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초청하는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그선거가 완전히 전조선인민이나 또는 남조선인민을 대표하지못하
며 그인민의 운명을 토의함에 참가할수없기 때문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六日 조선신문)

△미콜티소위공동결의안제출회고 망구적리승단 「정부」
승인과 재토론의대 유·엔위원단조직을회해

十二월七日 유·엔정치위원회에서

十二월七日 정치위원회는 조선문제에 본결에관한 토론을 개시하였다

위원회는 제헌총회에서 미국의주장에 의하여 유·엔법안을 위반하고서 제정된 제법적대행기관인 소위 「임시유·엔조선위원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위원회는 미국의 극동해역에서 자기의 침략정책을 음모하기위한 장악으로 그기관을 이용하기위하여 제정되었던것이다

여기되었던바 「임시유·엔조선위원회」은 미국패왕주의자들이 미국장관 힐드웨이와바와같이 남조선에서 영구한 「참조」를 파는것을 갖인노력을다하여 도아주었던것이나 또한동위원단은 금년五月十日 남조선에서 「단선」허극을 연출하고 정성애다 미국의피해 「정부」를 수립하는것을 도우면서 민주주의의기본적제원칙을 크게 위반하는데에 유·엔의 위신을 이용하였던것이다

「임시유·엔조선위원회」은 조선은 장래도역시 분할되체로 남아있을것이라 주장하였다

동위원단의 보고문에는 다음과같은 부류가있다

「남북조선간에 평화적관계를 달성시키는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모순된 이데올로기들과 그들의 정치로선들이 점점히 중대하여가는 제력을가지고 충돌을 계속하고있는한 무이할것이라고 본위원회는 믿고있는바이다」

남조선에 「참조」를 파놓고 남조선농민들의 군자기지로 변화시킬 미국침략자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위하여 제정된이법정하고도 고만무장한 결론은 조선인민들의 현실관리에 크게배척되는것이다 미국 비올렌트 호주및 부라질대표들은 十二월七日 정치위원회에서의 연설가운데서 「임시유·엔조선위원회」을 추켜올렸으며 또한 그원조일에서 조작된 정성의 피의정부를 조선공화국의 합법적정부처럼 지지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남북조선의 전국적의사표시의 결과로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정부를 유실하기에 갖는 노력을다하였다

정치위원회의 대표들에게는 미국 중국및 호주등대표들이 공동제출한 결의초안이 배부되었는데 이초안은 「임시유·엔조선위원회」의 결론들에대하여 총회의승인을 얻는것과 동위원단의 원조일에 정성에서조작된 피의정부를 합법적정부로서 제정되도록하야금 선포하도록 촉구하고있는것이다 이결의초안의 기안자들은 미국의

「조선위원단」보다도 더 광범한 권한을 가진 토하나의 「조선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대표 팔레쓰는 이 초안을 지지하는 그의 토론가운데서 유·엔은 벌써 결정된 것 즉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성명하였다.

그리하여 미국대표단은 경성에 있는 미국앞잡이들의 극히 미약한 입장을 방조하기 위하여 유·엔의 위신을 희박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로골적으로 폭로하였다. 미국철학자들이 남조선에 수립한 독압통치제도에 한번의 주의가 쏠리지 않도록 한 기위하여 팔레쓰는 북조선정제에 관한 무관거한 중상적선언들을 하는 데 불투하였다.

그의 연설은 공산주의에 대한 철부하고도 잔악한 편견으로 가득차 있었고 이것은 미국대표들이 하는 연설의 아주 포본이었다. 중국 불완전, 화란 기하, 미영불력의 주개국간의 대표들은 팔레쓰의 연설을 충실히 반박하였으되 팔레쓰로 하여금 그들 이외 미국대표단의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위원회의 많은 시간이 미영다수파에 의하여 강제로 포결된 결과 회의에 참가하게 된 정통의 피의정부대변인의 장황한 연설로 허비되었다.

조선에 있는 미정당당국의 이와같은 미국이 남조선에 수립한 피의정부를 전

황하였으되 북조선의 민주세력에 대하여 중상을 퍼우었다. 그는 미국의 남조선에 로거하며 서울「정부」를 그 자신의 운명에 맡겨 두지 말것을 애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정부」는 외국총괄의 주권을 받아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오전회의가 끝날 무렵엔 미국대표 팔레쓰는 토론을 닫고 결의초안을 팔리공파시키자고 서둘기 시작하였다.

팔레트대표 로지오노보는 이에 반대하여 미국대표단내 이명게서두는 것은 조선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우물적하며는 무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다 조선문제의 토론은 오후회의까지 연기되었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민주조선)

△조선문제의 전반적 토론

미불력의 장안으로 중지.

十二月八일 유·엔 정치위원회

十二月八일 조선문제를 논의하는 정치위원회 회오후회의는 조위 유·엔조선립지위 현안의 차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제로슬로바키아 유·고슬라바아 및 세로슬라바아 대표

들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장요에 의하여 미적으로 설계된 이 위원단은 남조선에서의 기만적인 반민주주의적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위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 위원단은 그 활동을 통하여 조선을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점령지로 만들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선에서의 미독점자들은 그들의 반민주주의적 목적들을 폭로하면서 때로 아대포단수적 개제로 보는 미국의 남조선에서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경제적 조건들을 빌려 만들어 놓았으며 조선을 양부분으로 절단하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성명하였다.

남조선 단독외정부들 조직하여 놓은 것은 미국의 모든 행동들을 완전하여 놓은 것이다. 개제로 보는 다사 계속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의 두가지 반민주적 측위 중 하나는 소련이 추구하고 있는 일분민주주의자들의 통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며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또 하나는 미국정부간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을 노예화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목적을 가진 조선간의 투쟁을 실제로 대중하고 있다. 단언하였다.

때로 아대포는 또한 미국대표단이 정치위원회에 제출한 약정문은 「조선위원회

단」의 사임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원호한 영국 및 정세의 외정부 대표들의 성명을 비난하였다. 개제로 보는 유·엔조선위원회는 재차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미국 결의안에 연루하여 때로 아대포단은 새로운 위원회의 형성을 전격히 반대한다고 성명하였다.

개제로 보는 「조선인민들 자체에게 「보호자」 없이 미국군대의 참가없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조선인민들 자체에게 동·적 안 민주독립국가들 건설할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때로 아대포는 결론에서 때로 아대포단은 「트레트르단」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트레트르결의안에 찬성투표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동회의에서의 기타연설자들은 카나다 뉴질랜드 및 알바니아의 대표들이 있었다.

그들은 미국대표가 그외성명간을대서 철축한것을 모두 고대로 운운하게 할수 하였을뿐 재포문 아무것도 부연하지않았다.

이들대표들이 미국총회의 자체으로써 정치위원회에서 말하기로 되어있었던것은 아주명백한것이다.

회의의마감에들어서 카나다대표는 조선문제에관한 전반적의견을 총결할것을 동의

하였다

조베르 및 과판대들측으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종결할것에 관한 차
나 대표의 제의는 대다수표결로써 통과되었다
그런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결판적의는 종료되었다
다음회의에 있어서는 정치위원회는 미국 및 조선대표단들이 제출한 결의안들을
검토하게 될것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一일 로동신문)

○조선에 관한 문제심의하고

유·엔정치위원회 사업종결

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작일(十二月八일) 야간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안을 심의
하였다 미국 조주 및 중국대표단이 제의한 결정안은 소위 유·엔정치위원회
의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그위원단의 대표자들로서 조선문제위원단을 새로히 설
정할것을 제의하였다 그결정의 조항중에는 유·엔총회는 「결정장구들이 조선유

로부터 가급적 속히 점령군대를 철거하도록 권고할것」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조항은 그본질에있어서 조선에 미국군대가 금후도 주둔하는것을 철회하는것이
그의 철거를 무기화하고 열거하는것이다

조선대표단은 유·엔조선위원단을 없이할것을 제의하는 결정안을 제기하였다

조선 우크라이나 과판 대로퍼야 대표들은 미국결정안을 반대하여 열렬하였다 이
같은 결정안을 채택하는것은 조선을 독립시키는데 방해가된다는데 관하여 반박
할수없는 증명을 인용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대표 마누일스키는 유·엔정치위원
위원단은 유·엔의 기관이 아니었고 미국국무성의 도구가였으며 그의 모른
동은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화하려는 미국독점자들의 의욕을 조성하는 방
향을가졌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이 제의하는 신위원회는 미국독점자들의 총살한
도구로 또한 될것이다

미국대표단은 자기의 결정안을 통과시키기위하여 많은 수단을 다하였다고 마
누일스키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수가가 어떠한 결정을 채택한다하더라도 전
인민들의 사회여론은 조베르대표단에 가담한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미국 「월렌트」 및 알바도르 대표자들은 미국결정안을 지지하여말하였다 그
외 알바도르대표단은 소련에 대한 반목한 목적을 저지않고하였다

「조원」에 대한 자기의 적대적 공격을 위하여 말바드르대사가 회유하고 있는 조원은
 「조원」의 부가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조원대사로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한한 감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미국결정안에 열거하여 조원대사는 그 결정안의 규정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이 결정안은 조선의 독립을 협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조선인민을 괴하여금 자기의 의사와 독립을 포기할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조원대사는 이 결정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그는 결론에서 말
 하였다.

그러나 발동된 미국의 투표기구는 자기의 사임을 하였다. 미국결정안은 대수
 로로서 채택되었다. 그를 지지하여 투표한 것은 四十一개의 대표자들이었다. 조원
 우크라이나, 멕시코, 파란,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들은 이 결정안을 반대
 하여 투표하였으며, 서열 몇 개를 취하는 기권하였다.

그다음에는 조원대사가 제의한 결정안에 대하여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를 지지
 하는 투표 六개, 四十二표는 반대 三개, 대사는 기권하였다. 그를 지지
 이것으로서 조선문제에 심의는 끝났으며 위원회를 사회하는 스파악크는 정
 치위원회는 그의 사임을 종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장에 포함되어 있던 이태리

적면지에 관한 문제는 四월一日 유·엔에서 제정된 본회의 제(二)회의까지 열거
 될 것이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五日 조선신문)

유·엔위원단의 변호장에
 날조된 남조선단독선지

조원대표 야·팔리코연설
 十二月八일 유·엔정치위원회

조원대표 야·팔리코는 十二月八일 정치위원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의 것
 머리에서 조선문제는 이미 두번이나 유·엔총회 의제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강
 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문제가 첫번에는 미국대표에 의하여 一九四七
 年十一月에 제(二)차 유·엔총회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조선문제가 다아
 는바와같이 미국의 주장에 의하여 참살된 「중간위원회」와 소위 「조선에 관한 유
 ·엔임시위원회」의 보고의 형식으로 제가되었다.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자기의 지배
 를 강요하려고 시도하면서 유·엔내에 소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유·엔을 평등으
 로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쓰련이 북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하는 것과 같이 미국은 신속한 사실내에 남
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 내선에 조선문제를 유·엔에 제기함으로서 조선문
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또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위무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서 미국은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단」을 비법적
으로 조작해 하였으며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조작된 「중간위원회」에 끌고 갔다
말리려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와에 제기한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비법적인 것
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후조정에 관한 전반적 문제의 일부인 조선문제는 만
시 현존국 제형성에 의거하여 해당관계 국가들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쓰련대표단
은 현재에 있어서도 이점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다수의 확
여 유·엔총회의정에 포함될 이상 쓰련대표단은 조선정체와 유·엔임시위원단」의
사업에 대한 견해를 진술하고 이 문제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조제)

조선인민의 발역자는 남조선미군정의 지주이다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단」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위원단이 이것을 바랐던지 바르지 않았던지 하여튼 남조선 미군정당국에 의하여
정찰가르 화하였다는 그림연한 사실을 문서로써 확증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개별적 문서의 보도에 의하여 세계에 알려졌던 그 사실의

오류와서는 유·엔위원단의 공적문서에 기술되었다 이 문서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一九五〇년八月 남조선에 침투한 미정영군사령부는 남조선의 적국영토가 아니요
적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현재의 군사적 점령제도를
설정하여 놓은 것이다

일본식민지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직후 남조선인민들이 창설하여 놓은 민주주의적
정권기관은 과파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미군당국은 일본법률과 경찰기구를 보존하
는 동시에 이전 일본식민지 통치제도를 복구시키고 또한 모든 행정 및 경찰기관의
작무문에 다년간 일본군주주의자들에게 복무하던 변절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그
대로 남겨 두었다 이러한 정책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마치 조선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적 관권행위를 가질 「능력이 없다」는 식민주의
치레를 펼쳐 놓았다 「유·엔임시위원단」도 이반인민적 비방적 이론을 그대로 설
취하여 자기의 보고에까지 입하였다 미군정당국에 이와 같은 이론이 필요하게 된
것은 조선인민의 눈앞에서 또 세계 여론앞에서 친일민족반역자들에 의거하고 있는
자기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변명하여 보려고 한 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발
생되고 있는 사실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토대를 전고 있는 북조선의 구체적 현실을
보조하여 보면 그 이른바 「어른」이 얼마나 허위적인 간하는 것을 여념히 알 수 있는 것

이하

조선군사령부는 북조선에 전수한 첫날부터 일제의 식민지적 통치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북조선인민의 광범한대중을 자기나라의 관리에 참가시키는 데 있어서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선거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지방정권기관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또한 제헌민주주의적개혁이 실현되었다 이제만 민주개혁의 결과 북조선에서는 국가활동가들 행정기관일꾼들 자기의 간부가 자라났으며 민주인민의 전부가 세로되다 하아 이리하여 이 사실은 조선인민의 자치능력이 없다는 반인민적의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민주주의적정치는 민주주의적제정당 및 사회단체가 광범히 참가하는 기층위에서 민주주의조선정부수립에 대한사업은 조선의 해방된 직후부터 완전히 실현되었으리 이는 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미군정당국은 자기들 제정주의목적 실현을 위해서 북조선민주주의자들에게 의거하여 남조선에 미군정당국은 자기들 제정주의목적 실현을 위하여 반을 더고 시도하였으리 또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리크는 「조선에 관한 유·엔임시위원회」 자체의 보고에 지적되어 있는 문서자료를 인용하면서 남조선 미군정국이 남조선에 경찰국가로 전환시켰으리 경찰체로

경찰을 실시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미군정당국은 일제통치하에 존재하고 있던 경찰을 그대로 보존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강화시켰다 위원단의 문서에나 하단 남조선정부수립으로 부터 받은 공적자로에 이하면 경찰은 일제시대의 七천명대선에 거의 三만명까지나 증가되었다 또한 위원단의 자료에서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경찰은 민족반역자들로써 가득차있으며 그들은 남구문지 다음대로 체포할수있고 또 무기한 무급하혀를수있다 위원단내에 들어있는 호주대표 제논의 언급에 의하면 남조선경찰은 여전히 일본경찰의 규율과 규정을 저침으로 삼고있다 남조선최고재판소장의 언급에 의하면 남조선경찰은 재판소의 판결없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포할수있으며 또한 경찰은 수천명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할수있다

남조선에서 온갖 민주주의의 자유를 탄압하고있는데 관하여서는 위원단의 一회의 록이 증명하여주고있는데 그 회의록에는 「민주주의적전해물가전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체포되어있거나 또는 투옥되어있거나 또는 이종와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 적어있다

남조선에는 경찰을 원조하기위하여 三十만명이상의 단원을 가졌으며 또한 학도사와 대부락에 지루를 갖고있는 거대한 반동파조직연단체가 조직되어있다

위원단생원들과 조선사람들과의 당화기를 읽으면 우리들은 남조선정세에 관하여
아악기하리 위원단으로는 그사람들이 얼마나 공로를 느끼는가 알수있다고 말
리키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들의 동지들의 생명을
염려하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하지말것을 요구하였다. 남
조선감옥은 경찰대로와 경찰회복의 희생자로서 충만되어있다 위원단의 자로로부
터 알수있는것은 감옥내에는 三만명의 민주주의활동가들이 감금되어있는바 그들
의다수는 자기조국의 자유와독립을위하여 투쟁하였다는 리유로써 일본통치시대에
검거되었던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는문제를 제기하면 「위원
단」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군정당국은 금년四月一일까지 三一四〇명의 정치범을 대사할것을 위원단에 제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이수자중에는 四月一일까지에 형기를 끝마친사람 一二五三
명이 포함되어있으며 그여의 「대사」받은 사람들을중에는 남조선으로 유·엔위원
단」을 파견하는데 반대하는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는리유로 또 파견에 관련하
였다는 리유로 一九四八년에 검거당한 사람들이 주로들어있는것이다 이같이하
이 「대사」는 민주주의사상을 가졌다는 리유로써 감옥에 투옥된 정치범들의 기
분정원에는 조금도 완쾌가 없는것이다

남조선정치생활에서는 국우익반도정당 「한국민주당」과 리승만도당의 지배하고있
다. 위원단은 자기대로중에서 승인하였다 「한국민주당」은 겨우 몇천명에불
과한 정원을 가지고있으며 대자본가 지주 약 절반의자들로써 구성되어있다 이당의
정원은 남조선미군정시기구의 관리층이다 남조선경무부장 조병옥은 이당의 활
동가의 한사람이다

남조선정정 및 경찰기구로부터 친일부자와 반역자들을 추청하려는 모든시도는
미군사령부로부터 강제한대들 받고있다 이것은 수인한일이 아니다 이것은 의
국인민에대한 지배체제인데 이체제에있어서는 반독재파식스트분자 반적자 반역자
매국노들이 지주로써 리용되고 있는것이다 이같은체제는 허탈 일본 육군 및 기
타의여타국가에서 적용되고있는데 역시남조선에서도 적용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이 피악한 경찰과 삼반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인사조선위원단」은
남조선에 자유선거를 실행할 조건이 되어있다는것같이 결론을 유·엔의 이름으
로써 내리울수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말리키는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원단위원자
선들까지도 남조선조선필에서는 자유로운선거는 불가능하며 인민의 모든 자유의
자포시는 배제되고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원단에서 이문제를 심의합
에있어서 호주대표는 「남조선거는 오직 한개의 유익정당에게 통제되었으며 이

당은 민주주의분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표시를 국가봉하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계부 하 지장군의 정책은 「남조선에 국익정당을 조직하려는 목적을 추구하
고 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이성명은 작년도에 조선임시정부조직을 확고하고 독립주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조
선을 세우시길 목적을 가진 조미공화국위원회를 설립할 무는 때문에 미국내로 돌아
시장은 가하는 을 함쳐주는 것이다 이성명은 무는 때문에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
엔에 상정하려고 그렇게까지 강경히 노력하였는 가하는 것과 「조선에 관한 유·엔
결정」을 조직하는 것이 무는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였는 가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연정당국은 그 위원단의원조를 받아가지고 남조선에 반동
분자들과 일민족반역자들을 피의정부로 조직하려고 애산하였던 것이다

조선인민은 남조선당선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유·엔위원단의 자로와 또는 一九四八년四月에 五十六개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들
이 참가하여 조직되었던 남북계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문전에서 본다면 정당및사회
단체들과 조선의 지명인 정자들 그중에는 남조선 국민회 활동가 김구와 김규직도 들어있다
남조선 「조선」전행을 단호히 반대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유·엔계정당과 사회단체

측으로부터까지도 남조선에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만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같은 환경에서의 선거는 비민주원제국가기구를 수립하는 데 이르러서는
적절하였던 것이다 우리 활동가 김구와 김규직은 위원단앞에서 그와같은전제
선거하였던바이다 남조선의 당세력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에 적면하고
자살투쟁과 탄압의 조건밖에서는 자유선거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위원단은
소위 「중간위원단」에 문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간위원회」는 미국대표의 장압밀
에게 「관료」라는 형식으로 남조선의 선거를 감시할임무를 자대하라는 적면지시
를 위원단에게 주었다 그러하여 「중간위원회」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으로써 또한
의 불법행동을 하였다 「중간위원회」는 남조선단선문제 중 심지어 유·엔총회의
조건에도 하지않은 그중요한 정치문제를 해결할결단과 취위하였다 「중간위원
회」는 그와같은 불법행동으로써 유·엔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말피크는 위원단이 위원四명의 차장부대표로 선거감시에 대한 권한을 가질것을
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四로중에서 三명의 차장부대표는 지명층이 미국에 전
거히 세속되어있는 국가대표들에게 속하였던것이다 그三국대표는 물론 미련이
바들몇 중공대표들이었다 선거를 찬동하여 루포한 네번째대표는 공인대표로였다
그리고 위원단의 二명의위원은 그것을 반대하였고 二명은 거권하였고 一명은

그런데
전혀
참가하지 않았던 바이다

그런데 「조선 위원회」의 권고를 「조선 위정대요」는 「국수」의 정통을 제의하고는 조선 전체 정당들이 그설거
적」이라코 하였도 호종대요는 「국수」의 정통을 제의하고는 조선 전체 정당들이 그설거
또 「포트하리」고 정명하였는데 그후 그것은 확정되었다 위원의 단장인
인도대요는 정명하기를 그는 「종간위원회」결정의 확정정당에 관한 회의에 동참이라
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조희(徐熙)가 조선을 통일시킬수 있겠는가」 나는
물시의 설한다 서거결판에 조적결 민속청부가 진실로 민족적인것이 될수 있겠는가
나는 물시의 설한다 우리가 선거의 차유는 위기를 보장할수 있겠는가 물시의
설하는바이다」라고 하였다

발리크인 인도 표와 이별계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선거를 찬동하여 투표할 수있었는가를 놀래지않을수 없다고 취적하였다 그월데 이제던 九명위원중에서 四명의 찬동후표로 위원단의 선거를 감지할 권한을 가월데대한 문제가 결정되었 다 바로 그월계남으로선 남조선단전의 운명은 해결되었다 위원단의 그와 같은 활동은 자유선거인원을 철폐하기는 고하하고 오히려 남조선제국의 선거가 가혹한 경찰압박과 탄압조건하에서 행해되도록하였다

습입적으로 조작성을 끼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조성인변이 철했으므로 반대하는 조경과 환경속에서 선거는 절대 될수 없다는것을 타산하여 미군정은 그에후종하는 남조선정부를 할과함께 강압적으로 선거를 실시할은갖대죄을 취하였던것이다 유권자들을 협박하기위하여 남조선주둔미군사령관은 「투표에 참가하지않는자는 그가 참가하지않는 선거결과로 성립된 정부의정책과 행동에대한 불만을 표명할권리를 상실할것이다」라는명령을 발표하였다

전거전에 전남조선에 걸쳐 대동적경치가 실시되었다. 금년(五월)七日부터 十日까지
 지 즉 전거전(三日) 동안에만 단절을 관대하는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특유로 五四二
 四명이 체포되었으며 三五〇명이 살해당한 부상당하였다. 전거이후 五월十日로
 부터 十四일까지 위원단제로 의하면 전거에 참가하니 한다는 것으로 부상당한 자가
 三七명이었으며 불해당자가 一二八명이었다. 전거는 군사경찰들이 직접 간섭하
 는 조선하에서 실시되었다. 마산군대 경찰 평년 때로 단화 특별히 조직된 「항모
 단」들이 동원되었다. 조선식분들의 분노에 의하면 미국군대는 완전한 전투준비상
 태에 있었으며 조선군대에는 미국군함들이 출동하였다. 전거일에는 남조선 전지역에
 미국비행기들이 출몰하고 있었으며 곳곳마다 미군경비원들이 차동출동을 하고 경계하
 여 내왕하였다. 여러 곳에서는 경찰들이 전거내에까지도 경계하고 있었다.

한데 그는 자유신문에 발표된 유·피거자로우의 성명을 인용하였다. 그가 은파에의하
면 「자유」에는 미국 수석 비행기들이 비행하였고 선거분구들은 항로단원들이 공동이
고 엄중히 경계하고 있었다. 선거분구로부터 三十一테더거리에선 총칼로 무장한 경
인들이 붙어지고 있었다. 유·엔위원단에서 스마르트는 세제의 선거분구를 시찰하
었는데 유권자를 구타하는 감시원 한사람을 체포하였다」
남조선의 선거는 경찰대로의 조직하에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조선정
이었다. 五월十一일 중앙선거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九二%가 선
거장에 광복하였고 그중에는 제주도에서도 유권자의 七〇%가 참가하였다고 한
다. 그러나 후에 남한바에의하면 제주도의 선거선거구 중 무개선거구에서
는 「피선」일선자에 투표가 전혀 결사되지 않았으므로 미군사령부는 할수없이
선거선거구의 선거일을 六월二二일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七〇%라는
숫자는 틀림없는 남조선정이었다. 이처럼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의 총퍼센트도 남
조선정이었다. 미군사령부의 결정에 의하여 한사람의 투표로자를 취권하여 투표하는
선거구에서는 그후로자는 투표하지 않고 피선된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면방식으로
一二명의 「피선」되었으며 그중에는 후에 미군정의 강압에 의하여 남조선의 정부
대통령으로 임명된 이승만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유·엔위원단은 그자체가 규정하

였으며 로고와자로에 열거한 사실들에만하여 선거의 결과는 마치 남조선유권자들의
자유 의사 표현하고 있는듯이 성명하였다.

위원단이 이와같이 남조선정론은 위원단 자체의 자로에 따른 원인과 사실에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객관적 판단자들의 견해와 결론에까지도 명백하게 모순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지 三명의 지도자인 조지·볼드윈은 남조선선거에 관하여 「미
국은 남조선에 민주주의적 기구를 창설하지 않았으며」 「미군정은 전례적응을 강
압하는 경찰국가로 수립하였다」고 성명하였다.

유·엔위원단은 월경행동을 하였으며 그의 일체 활동은 유·엔의 권위를 미용하
여 조선을 방문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심민지와 전략기지로 화하여는 미국의 계획들을
심화하여 행해있으며 남조선과 관련된 미군정당국의 채동과 인민중에서 민주주
의기구투파를 강요하게 하였으며 해로가 진행하는 조건하에서 진행한 선거의
날조를 일제하여 함에 있었으며 남조선단선과의 정부의 조계를 일제하여 함에 있
는 것이다.

유·엔의 편향된 인민들의 형식은 유·엔의 그의 한성원의 의하여 인민적 판단
부수의적 부주의의 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기구원들의 원
모순되는 것이다.

임시위원단정원가운데서 임시위원단내의 천미정우목의 자시에 의하여 이위원단은
미국과 남조선미군정의 주에서 노는 중대한도구로 되었다. 四명의위원이 유·연의
비조하에 추천한인구들가진 나라에서의 단독선거의 운명을 해결하는것보다 더피이
중요한이 이때있었는가 유·연추회가 과연 이런선거를 비적선거라고 할수있으며
자유선거라고 할수있으며 민주주의적선거라고 할수있었는가?
위원단의 이와같은 비적적활동은 조선인민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며 유·연의
활동 위헌시키는 활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말리크는 말하기를 조선대표단은 다음
회같은 제의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주·유·연추회

一九四七年十一月十四日 유·연추회결정에 의하여 조작된 유·연조선임시위원단
이 그후의 자기를동에있어서 조선에서의 장구한 일본통치의 악독한결과를 수정
한대하여는 협조하지않았고 조전을 민주주의적독립국가로서 부흥시킬 목적의
결과 민주주의적기초위에서 조전을 발전시키기위한 조전을 조정에 협력하지않
았다는것을 선언하며 마침내 一九四八年五月에 남조선에서 실시한 선거를 참
정할 권한을 자담한 위원단의활동은 자유선거의 진행을 협조하지못하였을 뿐만
아니한 오히려 남조선에서 경찰의압박과 탄압의조건하에서 그선거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을 지적하며

위원단의 존재는 반민주주의적정체를 음모하며 남조선에 반공적인 반인민적표
현을 성취할이 의용되고있고 또는 조선에 분열하며 조선인민의 민주적광복을 관망
하는적에를 의용되고있고 이것은 유·연의원족과 좌익에 무합되지않는것으로
인정하고

유·연조선임시위원단을 해산할것을 결정한다

말리크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정정도의 반공적정체를 음모하며고
이렇게 시도하였는가?

말리크는 자기위원의 후반부에서 말리크와 몇몇 다른대표들의 연설에대한
참조하였는바 그들은 통일 자유 독립 및 민주정제에관한 조선인민들의 갈망에대
하여 화해한일사로서 적지않게 말하였는바 유·연위원단의 자로인해 되어있는
바 남조선에 민주주의적 자유가 없다는것과 무작위적 태도를 증명하는 그자들
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지않았다 이것은 유·연위원들이 아니라 말리크
는 말하였다. 여기에서 연설자님들의 다대수중에는 세기의론으로부터 이사들을
유·연하의 미군정정부의 반민주주의적 반공정체를 음모하기위하여 노골적인

필목의 읍모를 품고 있었다

필레쓰 유화한 읍모는 「조선」 성명하기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미국대토단은 데
「로와」 탄압을 통치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유·영조선헌단」의 자로써
책으로 정적하게 고관한 자라면 부가 그것을 믿었는가? 선거전 운동장에서 남조
에서 선거 살해 및 부당한 사형의 수효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라 정치계 필인의
수효를 삼만 명을 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라

필레쓰는 성명하기를 「공산주의적 방법」은 그에게는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아는 파가다시 공산주의적 방법은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과 인테리들이 광범한 민
주개혁과 총선거권에 근거하여 국가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데 귀결하는 것이다. 이 방
법들은 필레쓰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 대신에 그는 남조선 주둔 미군정 당국의 목
인파 지도하에 남조선정인들이 적용하는 방법들은 대환영하는 것이다. 이 방법들
은 찬동할 분만 아니라 유·영총회로 하여금 그 방법에 법적이 라는 조장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조선인민에게 광범한 태도를 누가 감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
미국군정에 복무하고 있는 전일은 새국주의 추복들이 지도하고 있는 남조선경찰인
것이다

필레쓰는 모든 사실과 문헌에 대하여 정곡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필레쓰
가 자기의 연설에서 자신이 성명한 바와 같이 유·영으로 하여금 우선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것에 「법적」이라는 도장 붙여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필레쓰는 이를 재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필의 정책들 비평가한다는 필레쓰의 성명에 관하여 말리크는 각
종과 필의 정책의 실용적 측면을 미군정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거군정
감시하에 있는 남조선감옥에서는 수만 명의 구금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허랑에서 도
미국군사사절단의 눈이 계속 미군정 자들의 목인과 동의에 의하여 수천 명의 애국자들과
환향소류자들이 허랑당장 피살자들의 추애 총살당하고 있으며 투유당하였다 이것은
미국대장수의 자들이 실시하는 일련의 강압과 필의 정책의 일부뿐이다

「공산주의적 태도」에 대한 전술에 관하여 말리쿠는 말하기를 필레쓰는 이전에도
제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첫째는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단체에 대하여 미
군정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강압과 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조선에 안정
을 보장한다는 구실로써 조선에 군대주둔을 계속하려는 미군정 필라적의 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필레쓰가 제출한 결의안의 한 부분이었다

이결의안의목적은 첫째로 남조선의 비법적반민주주의적과외제도를 승인시키려는 데있는것이다 둘째목적은 미군군대가 남조선을 계속점령하기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데 있는것이다 이결안에있어서 미군대표단의 의사를 완전히 폭로하면서 역사는 반공의고있다고 말리코는 말하였다

남도에 유·연총회는 조선으로부터 모든점령군대를 가급적단시일내에 철거하야한다고 정명하였다는것을 산시킴으로써 말리코는 그때로부터 일련이상이 정화하였으나 미군군대는 여전히 조선에 점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군대표단은 로절대 단시일이라는데 관하여 특별한개념을 가지고있는 모양이다 가급적단시일내에 점령군대를 철거하는데관한 유·연총회의 장년도결정은 실현되지않았다 만일 일련이라는사실이 이조항에 적합되는기간으로 인정될수없나한다면 말리코가 「가장한 첫거회」라고 새로히제정한 조항은 얼마까지 기환으로 이해하여야할것인가? 외국평토에서 떠나가할원칙은그대 그것일 자기의 항구적 군사전략기지로 만들려고 지도하는것들에게는 군대철거를위한「가장한 첫거회」는 대단히 장구한 시일로 정교하여도 돌아올수없을것이다 남조선미국점령군에게는 바로 이와같은 조항이 필요한것이다

미국정부는二个의 음모를 알고있다 유·연특별위원회에서 그는 점령강국들이

조선으로부터 군대철거가능한 첫거회」에 철거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안을 제기할면서 남조선에서는 조선평토내에서 미국점령군대는 그진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마로이칼은 적으로써 미국은 남조선을 계속시키며 그것은 미국식민지로 전락시키는데정당 자기의 남조선해수비들과 제정하였다는것을 말리코는 지적하였다 점령군대철거를 감시하도록하기위하여 조선위원회는 제정할것을 제의하면서 미국은「임시유·연조선위원회」의 원조로서 남조선에있어서의 자기의 반공정책과 반민주주의적인정책을 폐하였던것과 똑같이 그위원회의 원조로서 남조선점령계속을 유해하려고 기대하고있다고 말리코는 지적하였다

이것은 말리코가 추구하고있는「공산주의적제도」에대한 전설의 재번제목적인것이다

미국이 다른국가들의 인권을통치하려는 시도는수단은 어떠하다 미국의 인압하에 조직화되고있는 허술 조선 인도네시아 기타나라에관한 유·연위원회는 실지한적은 이러한것이없

조선에 억압을 가한미국의목소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경의외정권대표의 여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말피크는 누구라도 지체파적인장에 서있는 사람은 그 여선함을 고 그 여선이 조선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미국의 목소리는 남조선에서의 선거가 자유롭게 진행될 것처럼 증명하려고 애썼다. 정경의외정권대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투표하였으리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의심할바없는 것이다. 바로 그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남조선의 군정의 치주들 이루고있는 것이다. 그는 증명하기를 「조선사람들중에는 다구나라보다 자기조국을 멸사략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하였다. 이것도 의심할바가 없다. 조선인민들중에는 다른인민들과 같이 변절자와 의국앞잡이들은 소수일 것이다. 애국자들은 수백만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정경의외정부는 조선에서 미국장기주권을 승인하여달라는 요청을가지고 유·엔에 조선할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반인민주주의정적을 가진 남조선의외정부는 유·엔의위원으로써 유·엔에 있는 위원단을 조직하여달라고 유·엔총회에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의외정부의대표는 바로이 따위 종류의 요청을가지고 유·엔정착위원회에 호소 하고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인민들과 적대하여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대표는 의국의총결과 국제위원단에 의거하지 않고는

조선에서 할수없다 왜그러나하면 그는조선사람이아니기때문이다 그는 김(경)가 자아니 「은」인 것이다.

정경의와 그의졸도들이 남조선의외정부를 조선의 민족적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의도한요구를 들고나오는것을 지적하면서 말피크는 말하기를 말피크의 요구는 너무나 지나친것이며 그는 정경의제도를 북조선지역에도 보급시키려고 갈망하고 있다고하였다. 미국회수아비들의 이망상이 어느때든지 실현되지 못할것은 의심할바가 없는것이다. 북조선인민은 남조선인민들과함께 一九四八년八月에 자기의민주주의적 인민정부를 선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하였으며 또 어느때든지 미국장자와 그의 앞잡이들의 노예로는 되지않을것이다.

미국대표의 여선에대한 몇마디말

유·엔 임시위원단이 남조선미군정에게 제공한 선거권고안을 절제 인용한 한국 대표에 대담하여 말피크는 중국대표가 이권고안에서 어떤것이 정수의지않았다는 것 목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당국은 유권자들에게 관한 자료는 제공할수없다는 구실로 조선인민영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할때대한 권고안은 접수하지않았다 그러나 원인은 여기에 있는것

이 아니라 그 원인은 조선인민의 가장 악독한 원수인 이반역자들이 미군정당국의 제제에 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유·엔위 단은 이반역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즉 다시 말하면 미국당국의 반민주주의적 반동정책을 음모하는 데 찬동하고 있다. 그리고 인정하였다.

말리크는 개하여 말하기를 중국대표는 역시 미국장군 위·커링그가 남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미군정은 반드시 자·르에서 얻은 인민주주의정권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한 설명을 상기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르에서의 인민주표는 一三三년正月十三일에 톨러정부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에 유리하게 종결된 자·르에서의 투표결과를 우선 독일앞잡이들의 공작으로써 보장되던 것이다. 그 투표는 막대한 금전의 허비와 광범히 전개된 선전과 「불응문하」에 대한 잔혹한 테로로써 달성되었던 것이다. 이 인민주표에 있어서 리틀리들 미국과 이태리가 도와주었다.

남조선의 군정당국은 여기로부터 소위 「민주주의적 자유선거」 실시에 정현을 보이고 있다. 미군정당국은 톨러의 테로와 강압과 위조적인 투표의 무기고에서 그 정현을 발휘하고 있다. 아정현은 미국위정자들의 구미에 맞았으며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엔임시위원단의 비호하에 남조선에서 반복되었던 것이다.

결론에서 말리크는 영국대표 위·커의 연설에 언급하였다. 말리크는 반동가들 제작정대 톨러의 원계관이 그들 불안케 하고 있는 듯할 위·커의 연설에 언급한 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최고인민회의에 남조선대의 원을 선거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의 대표선거에 대한 문제에 언급하였다. 위·커는 차음에 말하기를 이원선거가 전혀 없었다고 하여 놓고 즉시로 아설지와 관련하여 남조선에 투표용지대의 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이와같이 위·커는 스스로 자기를 반박하였다. 위원회에서 위·커가 제시한 위조투표용지에 관하여 말하면서 말리크는 이문제에 대하여 위·커와 논쟁할 필요조차 없으며 문제 소동을 일으킨 「톨러사들」의 폐자가 있음을 이와같은 위조서의 결과 조판장소는 지금에 와서는 이미 비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말리크는 위·커에게 한 가지 말을 결국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대로 선거는 확실히 있었는 것이 라고 하였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一日十二月十二日 부록 브라더지〕
〔一九四八年十二月十九日 로동신문〕

국회

국립사무총장

트루그베 · 리 · 귀

사무총장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위원에 의한 나는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인명화
는 성명을 가지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 국면총회 금차회
의에서의 조선문제에의 참가할 기회제공의하도록 루차 귀하에게 요청하였습니
다 그것은 조선문제가 토의될시에는 국면총회는 반드시 조선인민의 진정한대표
의 의견을듣고 또 반드시 우리인민의 이익과 지명에 적합한 결정을 채택해야만
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정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정치위원회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조선인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무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관계를 총회회의에서의 조선
문제의에 참가시키지않자루 결정하였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정치위원회의 이같은 진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함

의하는바입니다

조선정부는 이결정에 항의하면서 이것은 조선인민의 결정한대로의 참가없이
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려는 몇개국가와 무관개기도라고 인정하는바입니다

조선정부는 다음과같이 설명하는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총회회의가
조선정부대외관계를 참가없이 조선문제에 관한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조선정부의

정체조선인민은 이러한결정을 승인하지않을것이며 조선으로부러의 모든 의국군
의 특지권거를위하여 조국의통일과 통일적 조선민주주의독립국가수립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할것입니다

귀하에게 충실으로 정의를 포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 현 성

一九四八년十二月十日

평양시

(一九四八년十二月十一일 민주조선)

조선문제에 관하여도 본방에 전술로
미영협력회의안 강제 채택

十二月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유·영회의 전설회의

유·영회의 전설회의는 十二月十一일 밤 늦게 방청자들은 이미 자라지고 당면신문기
자들만이 이기적기질만은 눈물비치고있는 가운데 조선문제의 심의를 시작하였다
정리위원회의에서의 본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영다수파는 본문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총회로 하여금 소위 「유·영일시조선위원단」이 미군당국의 순순한
도조로써 동조하였으니 미군당국이 조선문제에 분열시키며 정점에 「정부」를
조선문제를 다루는 것은 증명하는 문건들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의도하였다 본
회의는 당국에서부터 미군당국의 유일한 목적은 총회로부터 구위원단 보다도 더
유·영협력회의를 가짐이 이점함으로써 미장점자들에 남조선에서 보다도 많이
무리를 씌는 것은 도를수없는 다른 하나의 「조선위원단」을 구성할 때 대한 결정을
고급이 내는 것이다 조선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 일지도 조금 화제자들은 유·영일시에서
정리위원회의에서의 조선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 일지도 조금 화제자들은 유·영일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대표단은 공공연한 압력을 피용하면서 자기에게 알맞은 전정을 강제통과
시키었다 그들은 유·영회의 전설회의의 연서는 의회로 투쟁은 전술을 보다다 무해하게 사
망하였다

완전하고 실제적인 자료물가지도 증명하면서 「조선위원단」의 계속은 조선인민의
회의에 유해하며 유·영의 위신을 더욱 저하시킬뿐일 것이라고 선언한 유·영의 대표
단 대표자들은 근거있고 무서웠는 점에 대하여 미영협력회의들은 합의 하에
조선문제에 관하여 하지 아니하였다

조선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오직 「서울」에서 열려야 하였다가 일요일 오후에 재개회의로
나 하등의 근본적 변화는 볼 수 없었다 미영협력지도자들은 투표에 자신만만하여
유·영의 지키었다 제면상 그들은 회의에서 중국 조주 및 가나다를 배후하는
조선의 모든 자를 동원시키었으나 지도자들은 그다지 운명이 되지 못하였다 그야
말로 이구동언으로 그들은 「조선위원단」 「조선위원단」 구성에 관한 합의 초안을 지체
없이 조정에 부쳐야 할다고 주장하였다 쓰런 및 실행주주의 국가 대표들은 자기
본질에서 「조선위원단」은 자기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회의의 은동을 억압하며
조선전정당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을 실행하는게 유·영의 위

신을 해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군정주에게 발의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또한대로 발리크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월조명에 남조선에서 실시된 선거의 미비점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는 많은 실례와 또한 미군정국이 남조선에 화합한 정찰 해로책도를 증명하는 사실들을 인용하였다 발리크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제출한 보고를 승인 하며 또한 정경파의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서 인정할 때 대한 제안에 조선대포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발리크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사설이 조선인민의 이익에 해치된 목적을 가졌으며 반민주주의적이고 또한 유·엔원장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쓰면은 동위원단의 해체에 관한 결의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는 다시 미국대포단측의 억압일에 정치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또한 미점령군을 남조선에 계속주둔시키도록으로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대포단이 전원회의에서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를 「가급적 속한 지일내로」 철퇴시키차고 제안하여 승인된 무의미하고도 해대한 규정은 조선으로부터 주둔군을 「가급적 철거」에 철의하자는 「대속주의」라고 더욱 막연한 문구들 가진 재결의 초안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발리크는 말하였다 또한 발리크는 재결의 초안 가운데

포함된 구명은 조선으로부터의 조선군대의 철거가 이미 시작되어 1948년 12월 말에는 완료하게 되어 있는 만큼 조선에 한하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대포단에서 떠나기 싫어하고 있을 수 있는대로 오래동안 구령으로 지배하고 가도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어떻게 무기한하게 차기군대를 주둔시키게 하든 구령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대포단은 그의 결론에서 정치위원회가 남조선의 주민들의 이익에 해로운 조선인민의 대표들을 이 문제의 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변화시킨

조선대포단이 유·엔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경위원회의가 제출한 결의초안은 다만 조선인민의 현실상의 이익을 위하여 유·엔의 위상에 또한 재결의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다음 동문제는 조선대포단의 주장이다 그대하여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미국대포단의 지시에 의하여 기안된 동결의 초안과 「조선위원단」 조주 중국 할바들 불만저인도 비틀림 및 헛된 야망으로 정결정」이라는 카나다대포단이 제출한 수정안은 다수결의로써 채택되었다

조선이 끝났다는 유·엔회의는 쓰면드레의안을 표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장은 조선 조급하게도 이 문제의 논의는 끝났다고 선언하려고 하였으나 쓰면대포단은

대한민국으로 의의를 인정시키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 대토대로 단두세
위신조키는 조대토결의조안은 이미 제출되어 그 채택부피었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은
동시에 권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자기대토결의 정당화권리라는 것을 말하였다. 또
조대토결의안은 결의에 주파한 결의안의 어느 항목에도 반부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결코 조대토결의조안은 보류될 수 없는 것이다.
조대토결의안은 그 정당화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조대토결의안이 제출한 결의조안을
조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의 설명이 끝난 다음 조대토결의조안은
조결에 부쳐져서 쓰린잇 전민주주의국가들의 대토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그
리나 미·영 다수파는 미국대토결의로 하여금 삼조안에 있어서의 그의 결의안을
이동시킨다는 언락으로써 미국의 위신과 삼조안을 용케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폭로하였
다. 만대투표하였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五日 민주조선)

조선문제에 관한 말리크의 연설

一九四八年十二月十二일 국민총회에

二. 미국은 조선의 독립제정을 망치고 있다

조선문제는 전후평화조정문제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말리크는 그의 연
설의 서두에서 말하였다. 一九四五年十二月의 모스크바 삼국의 상회의에서 조선을
홍살민주국립국가로 재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칙을 행하라며 조선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제조건을 창출할데에 찬하여 협정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조선정부측에서는 모스크바협정에 의하여 쓰린과 미국에 부과된 의무에 적응
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국이 조선민주주의적정당 및 사
회단체와 협의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희망과 기대에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조선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러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인
민자신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미공동위원회의 미국대토결의는 이 위원회가 사실에 착수한 첫날부터
협의의무를 위반하는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즉 그들은 만민주주의적정당을 협의
할 것을 고집하였으며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통합하고 있는 남조선의 만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에 참가시키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一九四五年十二月에 조선의 민주주의적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정부를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그들의 설치적 목적과 정책을 음모하는 계동만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쓰미공동위원회의 사실진행중에 이미 명백하여졌던 것이다. 미군정청과 미군사령부는 남조선의 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조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고 일본군주주의자들과 협력한 부일협력자들과 극우반동분자들을 지지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러한 미군대토들은 자기의 부당한 의무를 만족하지 위반하였던 것이다.

미국정부는 모스크바협정을 실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쓰미공동위원회자료를 인정시키지 않고 과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소명정부는 자기의 태도를 통하여 전세계안을 이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제 한의 요점은 조선반도 내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는 一九四八年 초까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철거를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국가사업에 대한 독립의 권리를 조처하며 조선의 민주주의정부의 정부를 수립하며 자기의 고유의 무력을 창설하며 또 외국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모든 내각적 정치적 및 경제적 국가생활을 조처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조바트제의는 조선인민의 근본적 요구와 미의에 합치되는 것이며 또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반적 원칙에도 일치되는 것이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에 관한 조바트정부의 제의는 조선인민의 가장 광범한 충열중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 그리고 우익계정당과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었다. 1은 이 조바트제의의 근본적 원칙으로 찬동하면서 맞이하였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거를 반대한 것은 다만 약망론은 조선인민의 적들뿐이었다. 그들에게 동대고 남조선미군정은 활동하고 있다.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거를 미국은 철정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군대에 의한 남조선정부를 될 수 있는 대로 장기간엄정하려 하며 남조선미군사령부가 의거하고 있는 반인민적 반동도당들과 지위를 강화하려 하며 또 자기군대들이 해포기관과 정부에 제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위「전지」를 남조선에 시행하려 하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전지에 관한 이 화장은 종류의 계획의 본질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로 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반민주주의적 본질을 띠고 있다.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반역자들에게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조선인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하고 미국은 국권의 위신을 과용하여 남조선에서의 자기의 정책을 음모하려고 하였다. 소위「다수」의 지지율이며 그들은 조선문제에 제이차국면총회의 의제일정에 포함시키고 소위「인사국면조선위원회」를 창설하는데 성공하였다. 어쨌든

한조정은 비례적이며, 조선인민의 민족자결원칙에 호응하는 것이다.

이 위원단의 작업은 미군정의 그들의 감독하에 있는 경찰기관을 통하여 실행한 남조선인민에 대한 폭압, 폭행, 테러의 횡행 속에서 진행되었다. 위원단의 참가하에 조선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남조선에서 만민투주의 위조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조선인민들이 중요하는 무일월력자유향 미국앞제비인 남조선반동도당을로서 구성된 피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미군정이 실시하는 남조선헌법선거를 반대하여 단결한 것이다. 일천만인민의 대의를 가지고 있는 오십육개의 우익, 중립, 온건, 좌익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전조선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남조선헌법선거를 보이콧할 것과 외국 군대의 즉시 철거를 요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미군정과 소위 「임시국립조선위원회」는 이조선인민의 소리를 무시하였다. 불합리한 불합리한 중립으로 구성된 천미적구분파가 지도하고 있는 「국립조선위원회」은 미군정의 비폭적으로 전향되었다. 이 위원단은 미군인민의 불공평한 탄압을 응징하는 행동으로 되었다.

二. 미국은 남조선에 피의정부로 장악하였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장악하며 철저진행에 직접간섭하는 조선에서 진행한 만민투주의 위조선거의 결과로 남조선에 피의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것은 다만 일제의 후방반동정당인 「한국민주당」과 리승만도당의 내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의 정치위원회에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또 반대파도 이 상제하를 필요로 하였으며 또 一九四八년 五月十日 「선거」가 경찰의 억압과 탄압의 조건하에서 진행되어 선거인단이 자유로히 의사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사실과 불합리한 피의필요가 없다고 말리크는 말하였다. 정치위원회에서 또 반대파단과 기타의 여러 국가 대표단들이 이 「선거」는 강제적이며 위조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그 증거는 아무도 본바할 수 없다.

이 반대파단은 「임시국립조선위원회」이 이 선거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의 이 인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단언이 제기하였지만 아직 아무 대답도 없다.

바로 그 위원단의 자료들 중에는 남조선의 선거가 테러로 조작하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다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리크는 지적하였다. 이 사실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단의 과잉행동 특히 불합리한 테러로도 불구하고 미군정당

국에게 이차권을 의탁에 맡기지 않도록 유예하기 위한 방편을 취하려고 정호하되 유언하였던 것이다

「일시국면조선위원단」의 자료들은 조사해본 결과 이위원단은 객관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순전히 미국의 이익에만 할당해 활동하였다는 것을 쓰리태도단은 확인한다. 이위원단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관찰자든지 남조선에는 선거를 위한 유료를 분위기는 전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국면위원단은 남조선에서의 선거결과를 결정하며 감시할 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리크는 별가하였다. 이위원단의 보고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위원단은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다만 구개만을 조직하였는바 그인원의 중요부분은 미군정직원을 중세시 몰아놓은 것이다. 위원단 자체의 자료에 의한다면 이반들은 선거구의 2% 이상은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서울정부는 남조선주민의 실제인대로 보고 선거할 수 없다고 말리크는 말하였다. 미국당국이 조선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이익에 반하여 수립한 이 정부는 미국 총정에 의지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환하려는 의도정체를 표시할 따름이다.

말리크는 강조하기를 미군정당국의 대표자도 피의정권의 수반 이승만도 조선의 법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환하려는 자기의 뜻을 일지기 감추지 않았다. 一九四八年十

월二十五일 조선출판물의 보도에 의한다면 이승만은 동경으로부터 도라와서 설명하기를 내아서는 남조선의 정권을 쥔 리르니 아주와 똑같이 보조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였다. 一九四八年二月五日 「일시국면조선위원단」의 회의식장에서 이위원단의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리승만은 우리위원단에게 말하기를 남조선에 단독정부가 수립된다면 이정권은 역시 미군의 상정적 그르마의 지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였다. 나는 내가 보면 개인적 대화를 인종할 수 있다. 그때 남조선의 미국 고문대표에게 이에 관하여 회상시켰던 것이다. 이 미국대표는 대답하기를 「미국의 총정이나 또는 국면의 지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소위 민족정부의 지위는 어떤 것일 것인가?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조선인이 그같이 싫어하는 말을 쓴다. 미구나 또는 국면의 후진성과와 같은 것일 것이다. 또한 만약 이 정부가 외국군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오래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말리크는 더 나아가서 지적하기를 국부정의 대변기관인 위정론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는 서울정권을 계속 유지해제노라고 그 목적을 말하였다. 미국 점령당국의 정책의 산물인 이반인민정권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반하여 국로의 불평을 고지화하며 남조선을 미국 자본의 제국령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루정적인 것은 임시위원단의 차도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미군정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경제설치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자-로에 경제정책
인민주주의적정치를 대충것이다 경제적이요 발전적인 자-로의 인민주주의적정치는「인
민주주의위원회」의 용호하에 남조선에서 발족되었음에 또 지금 민주주의당은 그당
국제행이 자-로의 인민주주의를 승인한것같이 국권이 남조선「정치」를 승인
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은「인사국면조선위원회」의 보고를 확인하고하여 피의자를 정권을
적으로 선거된 해포정부로서 승인하는 제의에 동의할수없다

「인사국면조선위원회」이 남조선의 선각의 결과가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인정하는데관하여 말해주는 그와같은 결과는 실재하는 완전한 모순
다른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위원단 자체의 차로에있으며 본거지에 남조선에있
면전대미문의 해포와 경제의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인용하
였다 그런데 어떤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당당은 월면의하게도 위원단에게 다
음과같이 통지하였다 즉 다만공적차로에만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선거실시준비기에
있어서 사자가四一六명 수상자가七五八명이었다 또남조선정부무장조병부의 공적자
료에의하면 七일사부히 十일까지 三일간에정치적강압의결과 피정권자가五四二四
명이었다

어떻게바로 이「인사국면조선위원회」의자료에 의한남조선의「자유」는 어떠한것
인가 감시반중 어떤반은 그보고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조선경찰의 피고문판
본초대위는 증거사건을 직접조사하였는데 그것은 一九四八년三월에 이터난것이
고백에 피검자들은 경찰취조대에 그물에다가한 구타의 결과로 경찰지서에서 사
다하였다 심문할때에 특히 다음과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피검문자들의 자
세다리를 붓고피대로 발바닥을때린다 부의자세에 매달이놓고 신체문을때린다 다
들 부로때달이놓는바 다량의물을 강제로먹인다 번스는 이고문은 일본경찰제도에
서 상용받은것이므로 생각하고있다 번스대위는 첨가하여말하기를 고문은 통례로
정할기 남에하여 또그는 고문받고있는 경찰피검자를 목격한것이 한두번이아니라
고하였다」

미국당국은 오직이와같은 질서가 그물에놓는 정치하며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고 말리크는 지적하였다 그런데 미군사령관하지는 위원단에게 다음
과같이 언급하였다「물론 경찰이 주민을구타하는 사건이 빈번하다 경찰은 수천
년상 그렇게행동하였으니 앞으로 수제대를 그렇게행동할것이다」「인사국면조선
위원회」에게 보도된 사실들은 이러한것이다 그러나 위원단은 이를과 무관하
지않았을판단아니라 또미국 미군정당국과 남조선의 그들의 주구들의 이와같은

추악한 행동을 용서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위헌당의 반민민적 반민주주의적 활동은 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향을 야기시킨 것이다. 조선의 광범한 민중들의 진영은 미국과 중국이 조선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서할 것과 「임시국헌위원회」를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없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의 그정원(국정) 어원자들의 반민적 반민주주의적 목적에 타응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되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국헌위원회의 국헌의 위헌에 모순되는 것이다. 조선인민의 이익에 손실되는 것은 「임시국헌조선위원회」의 행동은 반민주주의적이며 국헌위원회의 모순되며 국헌의 위헌에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은 상기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정의초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그정원(국정) 어원자들의

미국이 국헌의 위헌의 정적위원회의 다수가 채택한 정의초안으로 여러가지를 용서하는 것은 또한 대표단은 정적위원회의에서 이 초안에 반대투표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와 같은 정의의 채택은 무기한으로 미정정안을 남조선에 주문시키며 「조선위원회」인 반민주주의적 남조선정권과 남조선에 있어서의 미군용의 「민정행동」의 지주와 용의물로써 타당할 가능성을 주지 않는 것이다.

16

조선위원회에서 미국대표단의 제의에 의하여 채택된 용허하고 아무의 부도 부과하지 않고 「가동한」 급속한 기한내에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대한 조약은 재정의 초안에서는 「가동한 것」이 조선으로부터 정정안을 철거시키는 일종의 무대용하여 해매한 문구로써 바꾸어 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일제 一九四八年九月十一일에 조선과 미국 정부에 조선으로부터 조선군과 미군군을 동시에 즉시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을 조선인민회의가 용허하고는 다음과 같이 발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미 이에 응하지 못하며 조선내로 북조선으로부터 철거할 것을 결정하였다. 철거는 一九四八年十二月 말에 끝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상기 요청에 대하여 회답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는 조선인민의 요구에 커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군에 대하여 「가동한 것」이 조선으로부터 정정안을 철거시키려는 조항을 「변수없는 것」이 아니라 「가동한 것」이 조선으로부터 철거하고 있으며 철거는 급속한 「정정」에 끝나는 것이다. 「가동한 것」에서 「미군」을 철거하라는 요구는 이미 「가동한 것」에서 자기군대를 철거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써 이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은 조선인민의 이익에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이익에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다. 본절에 있어서 조항은 철회할 일정한 가한도 정하지 않고 조선명령에 의문을
 대가앞으로 더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제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말리크는 미국대표단은 「중의유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총회에서는 그
 들은 점령군이 「가능한 기회에」 조선으로 부하 철회하여야 한다는 제의를 지지하였다
 그리면서 미군정은 남조선의 한편의 지구를 미군용으로 확신하며 무기한으로 의
 지구에 있어서의 특권과 특권을 미군당국에게 하여하는 노예적협정을 남조선의
 정권에 강요하였다

이 노예적조약을 반대하여 많은 남조선의 퇴국회의원까지 항거하였다. 미점령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은 매일 천만명이 필요하다. 미점령군이 점령하고
 있는 모—는 장소와 창고의 대가를 조선인민은 자기의 부담으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의 전일본재산은 협정의 하에 실제로 미국당국의 수중에 넘어갔
 다. 남조선정권의 피의대통령 이승만은 남조선국회에서 삼기노예협정을 승인할것을
 요구하면서 연명하기를 미국대표단이 「과리국련총회에서 남조선정권을 지지한대
 대한보상으로서」 이런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위하여 이승만과 그의 도당
 뿐 아니라 조선훈민들의 리익을 배반하려하는 것이다.
 미국대표는 정치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군정이 남조선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모—는 것에 대하여 국련총회가 「법적이라는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같은 모—는 불법에 대하여 법적이라는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미국대표단은 이와같은길로 총회를 끌어가고있다

말리크는 계속하여 연명하기를 이와같은 과밀적결과를 초래한 「임시국련조선위
 원단」의 사설을 계속할 선 「조선위원회」을 조직하는것은 용인할수없으며 국련의
 원측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쓰면대표단은 생각한다고 하였다

조선은 독립국가로 회복하는 유일한길은 외국군대를 조선명령으로부터 철거하고
 「임시국련조선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선인민에게 자기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있는 가능성을 주는에 있다고 쓰면대표단은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결론에서 말리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조선문제회의에 참가시키지않
 으므로써 정치위원회가 법한 놀라운 공공정상에 총회원들의 주의를 이끌었다
 「영미블록」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정치위원회는 「미국의소리」서울의외정권의대표의
 말을 듣고는 것을 전락하였다

영미블록과 특히 미국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이대표가 미군정 어떨게 남조선을 경찰국가로 전환시켰는가 하는
 것을 국제적연단을 통하여 말할수있기 때문이다. 이공로는 미국대표단과 영미블록의

正 誤 表			正 誤 表		
頁	行	誤	正	頁	行
一	一	목자	목차	一	一
一	二	화할수	화정할수	一	二
九	四	회선	회전	九	四
十一	十一	회에함	회람에	十一	十一
十三	三	유자권	유림자	十三	三
十八	九	결의하였나하고	결의하였다고	十八	九
二十六	九	민국장관	민국장관	二十六	九
二十七	八	정치위원회	정치위원회	二十七	八
二十七	二	인민공화정부	인민공화국정부	二十七	二
三十四	一	로써야	으로써야	三十四	一
三八	一	식민지적	식민지적	三八	一
四二	三	남북제정당	남북제정당	四二	三
四六	一	전설	전설	四六	一
四七	五	현장	현장	四七	五
七四	二	악기	악기	七四	二
七五	三	조선으로부터	조선으로부터	七五	三
七五	一	조항을	조항을	七五	一
七五	十五	이와같이	이와같은	七五	十五
七七	五	사설을	사설을	七七	五
七七	十五	미군정	미군정이	七七	十五
七七	四	과별적	과별적	七七	四
七八	五	복합	복합	七八	五

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을 결정을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정체의 전상을 말할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지않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의는 제국여론의지지를받을것이며 정의는 승리할것이다. 이것은 의심이 지가없다. 조선인민과 또 어떤나라의 인민도 어느것이 전라이고 정의이며 이 것이 위위 전형 복압인가를 잘알고있다.

(一九四八年十二月十六일부 푸라부다지에서 번역)

一九四九年四月十五日
一九四九年四月二十日

印刷
發行

著作者

國際問題研究會

電話三三四一番

發行所

國際問題研究會

平壤特別市蓮花里十三番地

民主朝鮮社出版印刷所

電話四七一八番

10,000部

—9707

第三次國際經濟會議資料



SHIPPING ADVICE # 2005

BOX # 2

ITEM # 99

Batch No. 85

Item No. 132

究